

## 특별기고

#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의 정체성: 출발점을 제공하는 학술지

전우영<sup>1</sup>, 김수영<sup>2</sup>, 김영훈<sup>3</sup>, 김은하<sup>4</sup>, 김초복<sup>5</sup>, 문은영<sup>6</sup>, 박선웅<sup>7</sup>, 박형인<sup>8</sup>, 안서원<sup>9</sup>,  
양계민<sup>10</sup>, 양재원<sup>11</sup>, 이동귀<sup>12</sup>, 정윤경<sup>13</sup>, 정혜원<sup>14</sup>, 최기홍<sup>15</sup>, 최훈<sup>16</sup>, 김남희<sup>17</sup>

<sup>1,17</sup>충남대학교 심리학과, <sup>2</sup>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sup>3,12</sup>연세대학교 심리학과, <sup>4</sup>아주대학교 심리학과,  
<sup>5</sup>경북대학교 심리학과, <sup>6</sup>UNT Health Science Center, <sup>7,15</sup>고려대학교 심리학과,  
<sup>8</sup>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sup>9</sup>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sup>10</sup>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sup>11,13</sup>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sup>14</sup>충남대학교 교육학과, <sup>16</sup>한림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편집위원회는 지난 3년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을 한국심리학회  
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고민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의 지속적인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요어: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의 정체성

1. 편집위원장, 충남대학교 심리학과(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대학로 99), wooyoung@cnu.ac.kr
2. 부편집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suyoung.kim@ewha.ac.kr
3. 부편집위원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younghoonkim@yonsei.ac.kr
4. 부편집위원장, 아주대학교 심리학과(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eunkim@ajou.ac.kr
5. 부편집위원장, 경북대학교 심리학과(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ckim@knu.ac.kr
6. 부편집위원장, UNT Health Science Center(3500 Camp Bowie Blvd., EAD 709, Fort Worth, TX 76107-2699,  
USA), eun-young.mun@unthsc.edu

### 정체성의 확립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이하 『일반』)의 새로운 편집위원회가 2015년 9월에 구성되었습니다(실제 편집은 2015년 12월호부터 시작했습니다). 출범 당시 저희는 『일반』의 정체성 확립을 편집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과학술지들과는 구별되는 『일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일반』이 성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분과학술지들이 각 분야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면, 『일반』은 심리학의 모든 분야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의 모든 분야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편집위원회는 『일반』을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학술지로 변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일반』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 관심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되는, 그리고 찾아봐야만 하는 학술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학부생, 심지어는 일반인들도 심리학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관심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일반』에 그 주제의 연구현황을 보여주고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한 논문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일반』은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개관 논문들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논문뿐만 아니라 하나의 연구 주제나 연구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직화한 논문에도 『일반』의 문을 크게 열어두었습니다.

『일반』은 2016년 3월호(35권 1호)까지 ‘일반 논문’과 ‘방법론 논문’의 두 개 섹션으로 구분해서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개관과 경험 논문이 모두 ‘일반 논문’ 섹션에 묶여서 출판된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 6월호(35권 2호)부터는 ‘개관 논문’ 섹션을 독립시킴으로써 『일반』이 심리학 분야의 개관 논문에 초점을 맞춘 학술지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개관 논문’, ‘경험 논문’, 그리고 ‘방법론 논문’의 총 세 개의 섹션으로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관 논문’ 섹션을 별도로 두기 시작한

7. 부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sunwpark@korea.ac.kr
8. 부편집위원장,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hi.park@skku.edu
9. 부편집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sahn@seoultech.ac.kr
10. 부편집위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yangkm@nypi.re.kr
11. 부편집위원장,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1466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jwyang@catholic.ac.kr
12. 부편집위원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lee82@yonsei.ac.kr
13. 부편집위원장,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1466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benijeong@catholic.ac.kr
14. 부편집위원장, 충남대학교 교육학과(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대학로 99), chw7@cnu.ac.kr
15. 부편집위원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kchoi1@korea.ac.kr
16. 부편집위원장, 한림대학교 심리학과(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hoonchoi@hallym.ac.kr
17. 편집간사, 충남대학교 심리학과(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대학로 99), namsikkim2@gmail.com

2016년 6월호부터 『일반』에 게재된 논문 중에 개관논문의 비율은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9월호(36권 3호)의 경우에는 출판된 모든 논문들이 개관 논문으로 채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개관 논문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험 논문의 경우에는 심리학의 다양한 하위 분야에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연구들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이 심리학의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법론의 최신 주제를 다룬 논문들에 출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이 심리학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영향력 지수 상위 4%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학술지로서의 정체성 확립 노력은 객관적인 지표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2018년에 발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영향력 지수(KCI Impact Factor)에서 『일반』은 영향력 지수(KCI IF=2.14)가 사회과학분야 581개 학술지 중 2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연구재단, 2018). 이는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중에서 상위 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인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외부 학술지에 인용된 것만으로 산출된 ‘자기인용 제외 영향력 지수(KCI IF=2.05)’는 581개 학술지 중 11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영향력 지수(KCI IF=1.35)가 588개의 학술지 중 143번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8년에 발표된 지표는, 『일반』이 한국 사회과학 분야의 중심 학술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영향력 지수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를 통해 개별 학술지들의 영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한다면,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작업은 정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수치로는 환산될 수 없는 학술지의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통합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연구재단이 2017년에 발표한 학술지 평가 결과공고에서 『일반』이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한국연구재단, 2018). 우수등재학술지 선정은 한국연구재단이 평가하는 전체 학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34종(인문예체분과 4종, 사회과학분과 12종, 과학기술분과 18종)만이 우수등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580여개의 학술지 중 12종만이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학계에서 『일반』을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중심 학술지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논문 투고 시스템 및 학술지 홈페이지 구축

학술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고자, 심사자, 편집자, 그리고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

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심리학회의 지원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논문 투고 및 심사 관리를 위한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홈페이지: [www.dbpiaone.com/kjp-general](http://www.dbpiaone.com/kjp-general)). 또한 『일반』에 게재된 논문들을 웹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학술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홈페이지: [www.kjp-general.org](http://www.kjp-general.org)). 이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논문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관논문 작성 문화의 확산

『일반』이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일반』이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편집위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개관논문 작성 문화의 확산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 제안입니다.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는 학술지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수의 개관 논문의 투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관 논문을 쓰는 문화가 한국심리학회 구성원들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경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연구 분야나 주제에 대해 폭넓은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논문화 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헌 연구의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문화 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책을 제안하는 학술지

『일반』에 게재되는 논문들은 심리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심리학적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심리학이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심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반』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통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3년간 회원님들께서 학회지에 보여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참고문헌

- 한국연구재단 (2017). 2017년도 학술지 평가 결과공고. <http://nrf.re.kr>에서 2018, 9, 24인출.
- 한국연구재단 (2018). 『KCI 2017 인용지수』 제공 안내. <https://www.kci.go.kr>에서 2018, 9, 24인출.

## Special Report

# The Identity of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The Primary Venue for Psychological Advances

Woo Young Chun<sup>1</sup>, Su-Young Kim<sup>2</sup>, Young-Hoon Kim<sup>3</sup>, Eun-ha Kim<sup>4</sup>, Chobok Kim<sup>5</sup>,  
Eun-Young Mun<sup>6</sup>, Sun W. Park<sup>7</sup>, Park Hyung In<sup>8</sup>, Sowon Ahn<sup>9</sup>, Kyemin Yang<sup>10</sup>,  
Jaewon Yang<sup>11</sup>, Dong Gwi Le<sup>12</sup>, Yoonkyung Jeong<sup>13</sup>, Hyewon Chung<sup>14</sup>, Kee-Hong Choi<sup>15</sup>,  
Hoon Choi<sup>16</sup>, Namhee Kim<sup>17</sup>

<sup>1,17</sup>Dep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up>3,12</sup>Dep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up>4</sup>Dep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sup>5</sup>Dep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p>6</sup>UNT Health Science Center,  
<sup>7,15</sup>Dep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sup>8</sup>Dep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sup>9</sup>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up>10</sup>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up>11,13</sup>Dep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sup>14</sup>Dept.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up>16</sup>Dep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For the past three years, our editorial team has been striving to transfigur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into a representative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 this special report, our endeavors,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are discussed. We hope that this work will further the growth of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Key words* : The identity of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